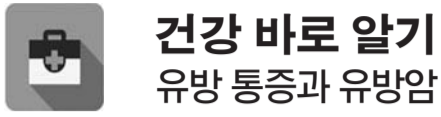


유방암, 95% 이상 무통 발생...1주일 이상 통증 지속땀 의심



생리전 호르몬 변화로 유방통증 유발...일반 통증과 구분 어려워
증상땀 사진촬영·초음파 등 검진 필요...반드시 전문의 진료 받아야

김유석 조선대병원 내분비외과 교수

2017년 국가암등록 통계를 살펴보면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종으로,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또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유방에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증상 중의 하나로 유방통증을 들 수 있는데, 유방통증이 생기는 경우 많은 분들이 혹시 암이 아닐까 걱정을 하며 병원을 찾는다.

물론 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방암은 통증이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한국유방암학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방암 등록사업의 통계를 살펴 보면 유방암인 경우 가장 흔한 증상은 만져지는 유방의 혹이나 혹은 아무런 증상이 없이 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유방통증으로 검사를 하다가 발견된 경우는 전체 유방암 환자의 4.5% 정도에 불과하다.

◇유방통증은 호르몬 변화가 주 원인=예전에는 성격이 예민하고 조금만 여성들에게서 생길 수 있는 정신신경학적인 증상으로 잘못 생각되었으나,

현재는 생리적인 여성 호르몬 변화에 따른 유방의 과민반응으로 생각되고 있다. 다시 말해 유방통증은 병이라기 보다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맞다.

정상적으로도 많은 여성들이 생리 주기에 따라 특히 생리 전에 나타나는 호르몬 변화의 영향으로 유방의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통증을 병적인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애매할 때가 많다.

실제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90%는 증상이 가볍고 일시적이며 저절로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나머지 10% 정도의 환자만이 통증이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방클리닉 등을 통해 평가 후 약물 치료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원인으로는 카페인, 지방질이 많은 식이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여성 호르몬 불균형이 유방통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유방 통증이 월경 주기에 따라 같이 변화하는 점과 폐경이 되면 자연히 통증이 없어지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체내의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외에 위장약이나

혈압약, 신경안정제 같은 약을 복용하거나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통증이 오기도 한다.

◇유방 통증의 종류별 원인=유방 통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기적 통증과 비주기적 통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기적인 통증은 대부분 생리 전에 가장 심하다가 생리가 시작되면 감소하며 평균 한달에 5일 정도, 양쪽이나 아픈 것이 일반적인 증상이지만 한쪽만 아픈 경우도 있다.

거의 대부분의 유방 통증이 여기에 해당되며 아픈 부분을 정확히 가리키기 힘들지만 대개는 유두를 중심으로 바깥쪽과 위쪽에 통증을 많이 느끼며, 심한 경우 겨드랑이와 팔 끝까지 통증이 전달되기도 한다.

이러한 주기적인 통증은 30대 여성에서 흔히 나타나며 임신이나 경구피임약 복용시에 통증이 감소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비주기적인 통증은 생리 주기에 관계 없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며 주기적인 통증에 비해 드문 편이다.

대부분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며, 40대 이후에 주로 많이 나타나고 폐경 후에도 나타날 수 있다. 대개는 한쪽 유방에만 나타나며 통증 부위를 명



김유석 조선대병원 내분비외과 교수가 유방암 수술을 하고 있다.

확하게 지적할 수 있고 "예리하게 칼로 찌르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비주기적인 통증을 느낄 때는 유방암을 감별하기 위해 유방 전문의의 진찰이 필요합니다.

정리해 보면 대부분의 유방통증 자체는 유방암과 관련이 없지만 증상이 발생한 경우 유방전문의의

진찰과 유방사진촬영·초음파 등이 필요하며, 그 이유는 유방암 환자 중 낮긴 하지만 약 4~5% 정도에서 유방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이다. 유방통증이 발생한 경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유방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청렴시민감사관' 출범...부패 근절 이미지 향상

시민감사관 3명 위촉식

전남대병원(병원장 이상용)이 보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을 7일 개최했다. (사진)

청렴시민감사관은 병원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자문과 제도개선 제안 및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병원의 특성과 관련성 있고 사회적 신망과 청렴성이 높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병원 행정동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새로 위촉된 감사관을 비롯해 이상용 병원장과 이성길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새로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은 정형순 전 광주은행 부행장(전 관은비즈니스(주) 대표이사)·정담 현 광주시 시립요양병원 이사(현 정담 치료의원 원장)·강신중 전 광주고등법원 판사(현 법무법인 강을 대표변호사) 3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이날 위촉식 직후 대



표시민감사관 호선과 감사실 업무 및 청렴업무 보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첫 회의가 있었다.

이날 청렴시민감사관 출범에 따라 행정 투명성 증대·부패 관행 근절·행정서비스 품질향상 등 깨끗한 전남대병원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성길 상임감사는 "청렴시민감사관은 공공기관의 청렴성 및 공공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된 제도이다"면서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가는데 주력할 것이다"고 출범배경을 설명했다.

이상용 병원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출범은 전남대병원이 새로운 혁신의 시대로 나아가는데 주요한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이를 계기로 전남대병원이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코로나19 확진 임산부 첫 분만 수술...호남지역 최초

의료진 체계적 협진 큰 역할

전남대병원(병원장 이상용)이 호남지역 최초로 코로나19 확진 임산부 분만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30대의 산모 A씨를 대상으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해 2시간여 만에 2.6kg의 남자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는데 성공했다.

현재 산모는 코로나19 증상이 완화돼 음압격리병실에서 치료 중이며, 신생아는 출산직후 시행한 코로나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돼 별도의 음압격리실에서 소아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임신 37주째인 지난달 27일부터 인후통과 발열이 있어 전남대병원을 내원해 선별진료소의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돼 국가지정음압 격리병동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상태였다.

수술예정일(8일)보다 삼일이나 빨리 산전 진통이 발생해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술을 위해 마련된 별도의 수술실로 옮겨

수술을 받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호남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임산부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무엇보다 이번 수술은 감염관리실의 지침 속에 국가지정입원치료병동 및 감염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마취과, 수술실, 분만실 등 관련 의료진의 체계적인 협진을 통해 이뤄진 우수한 사례로 꼽힌다.

A씨 입원 이후부터 관련 의료진들은 별도의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산모의 응급 상황 및 수술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으며, 이 같은 협진체제로 인해 응급으로 진행된 이번 수술을 혼선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이날 감염 예방을 위해 수술실에는 최소 의료진만이 참여했으며, 나머지 의료진은 수술실 밖에서 수술을 지켜보며 만일의 상황을 대비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분만 수술은 의료진과 신생아에 대한 감염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진행되는데다, 의료진은 레벨D 방호복까지 갖춰야 하는 만큼 여느 수술보

다 까다롭다.

수술을 집도한 김중은 산부인과 교수는 "방호복 차림에 장갑도 두 겹이나 착용한 채 시행하는 만큼 일반 수술보다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수술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무엇보다 이번 환자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었기에 어려움이 없이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 입원부터 수술까지 전 과정을 총괄 지휘한 박경화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두 차례의 의심 환자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협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면서 "실력과 경력이 풍부한 의료진의 원활한 협조가 이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산모와 신생아 모두 곧 퇴원하게 돼 다행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수술을 마친 의료진은 A씨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중인 A씨의 남편에게 동영상과 사진으로 아이의 모습을 전해주는 세심함을 보였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